

## 歸脾湯證의 病因論的 分析을 위한 說問問項 開發

이병희 · 박영재 · 김민용 · 박영배

경희대학교 학과간협동과정 한방인체정보의학과

---

### Abstract

---

#### Development of Questionnaires for Pathogenesis Analysis of Guibi-tang Symptom

Byoung-Hee Lee · Young-Jae Park · Min-Yong Kim · Hwan-Sup Oh · Young-Bae Park

*Department of Human Informatics of Oriental Medicine Interdisciplinary Programs of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Background :**

Guibi-tang is one of the most common herbs in oriental medicine. Principally, this medicine heals illness from overstress. Therefore, it is frequently used in the ancient community. Because of insufficiency in data, objective judgements are difficult in remedial effects by Guibi-tang. In order to make objectivity diagnose data, this research is developed.

#### **Purpose :**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make questionnaire for the medicine and the objective is to sell to the public from the local clinic.

#### **Methods :**

The questionnaire which includes symptoms and signs for diagnose of Guibi-tang is studied by the Delphi method and average value.

#### **Results :**

By the Delphi method and average value, 22 Items of questionnaires are choosen for the research.

#### **Conclusions :**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for modification of questionnaire by statistics and cerification by clinical trial. The statistics and verification by clinical trial is necessary with modification for further research.

#### **Key Words :**

Delphi method, questionnaire, Guibi-tang.

## I. 서론

現代社會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社會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가족간의 스트레스 등은 더 많아지고 있다. 個人的 社會的인 競爭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 가정에서의 이혼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思慮過多, 七情傷 등을 치료해내는 處方의 필요성은 점점 무게를 더해간다.

歸脾湯은 宋代 嚴用和의<濟生方 倦之四>에 『治思慮過度, 勞傷心脾, 健忘怔忡』이라고<sup>1)</sup> 처음으로 기록된 이후 歷代 醫家<sup>2,4)</sup>들에 의해 思慮過度, 勞傷心脾, 健忘, 怔忡 或 食少不眠, 驚悸盜汗, 發熱體倦 등 精神過度로 인한 諸般 증상에 두루 응용되어 왔다. 그리고 歸脾湯은 현재에도 七情傷으로 인한 여러 증상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歸脾湯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아래와 같다. 韓莉와 韓罡<sup>5)</sup>은 『歸脾湯治療失眠119例』에서 불면증에 대한 歸脾湯의 임상적인 실제 효과를 검증 하였고, 馮章巧와 吳紅霞<sup>6)</sup>는 『歸脾湯治療心悸失眠68例』에서 心悸를 동반한 불면증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歸脾湯에 대한 眩暈에 대한 연구<sup>7)</sup>와 憂鬱症에 대한 연구<sup>8)</sup>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연구<sup>9)</sup>가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이 주로 歸脾湯의 效能 검증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歸脾湯에 대한 效能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歸脾湯을 진단해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연구도 그만큼 필요하다.

病因論은 病的 原因을 찾아 治療를 하는 방법론으로 역대 많은 의가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黃帝內經>의 病因論은 『百病始生篇』, 『口問篇』 및 『調經論』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되었고<sup>10)</sup>, 張仲景은 <金匱要略><sup>11)</sup>, 陶弘景은 <肘後百一方><sup>12)</sup>, 陳言은 <三因方><sup>13)</sup> 등 여러 의서에서 病因論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에는 大韓病因學會에 의해서 그 病因論의 중요성과 효용성

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病因治法의 장점은 진단의 과정이 환자가 호소하는 복잡한 증상에 얽매이지 않고 病的 發生 原因을 찾는 것이므로 매우 간결하고 명료하다는 것이다.<sup>14)</sup> 이런 病因治法의 간결, 명료한 장점은 진단 과정을 객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韓醫學 診斷의 四診의 과정은 한의사 마다의 개인적인 역량과 주관 때문에 病因을 이끌어내는 부분에서 편차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聞診과 問診의 내용을 객관화, 정량화 할 수 있는

설문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의학계에서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로는 고<sup>15)</sup>의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 김<sup>16)</sup>의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김<sup>17,18)</sup>의 한열변증설문지, 양<sup>19)</sup>의 어혈변증설문지, 박<sup>20)</sup>의 담음변증설문지, 배<sup>21)</sup>의 열변증설문지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증상의 나열을 통한 辨證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病的 原因을 찾는 방법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으며, 症狀을 바탕으로 病因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處方을 결정할 수 있는 설문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七情傷에 사용되고 있는 處方 중 임상활용도가 높고 현재 임상가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歸脾湯을 病因의 시각에서 辨證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病因辨證 定量化를 이루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설문문항을 선정하고 임상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유의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연구방법 및 결과

설문문항은 5종의 서적을 통하여 26개 문항을 선정했으며, 그 문항을 가지고 대한병인학회 회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1,2차는 임상진단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7점 척도를 통해서 조사하였고, 3차 설문 조사는 각 문항별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설문문항 선정**

설문 문항 선정을 위하여 李<sup>3)</sup>의 醫學入門, 許<sup>2)</sup>의 東醫寶鑑, 張<sup>22)</sup>의 景岳全書, 朴<sup>23)</sup>의 病因病機學, 金<sup>14)</sup>의 病因論 등 5종을 참고서적으로 선택하였다. 각각의 문헌들에서 歸脾湯과 관련이 있는 條文들을 검색한 뒤 각각의 條文들을 임상에서 쓸 수있는 표현으로 전환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임상한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실제 사용하는 쉬운 용어로 26개의 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순서는 무작위로 배치하였다.(Table. 1)

설문 문항의 대부분은 원문의 내용에 충실히 하여 실으려고 노력했으나 23)과 26)의 문항은 원문에서

그 증상을 찾기는 어려우나 七情傷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로써 임상한의사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이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임상한의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문항의 중요도를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한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1회의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2) 1차 설문조사**

작성된 26개의 설문문항은 임상한의사들에 의해 歸脾湯을 辨證하는 설문문항의 중요도를 7점 척도를 사용하여 답하게 하였다. (Table. 2)

설문에 답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항은 1점으로 답변하게

Table 1. Questionnaire Items

| 설문문항                          | 설문문항                    |
|-------------------------------|-------------------------|
| 1.심장이 두근거린다.                  | 14.입맛은 있으나 소화가 안된다.     |
| 2.건망증이 있다.                    | 15.숨이 찬다.               |
| 3.어지럽다.                       | 16.불안할 때가 있다.           |
| 4.평소 근심 걱정이 많다.               | 17.늘 피곤하여 눕고만 싶다.       |
| 5.(여성의 경우) 생리량이 늘거나 줄은 적이 있다. | 18.입이 쓰다.               |
| 6.(여성의 경우) 생리의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 19.목이 마르다.              |
| 7.가슴이 아프다.                    | 20.깜짝깜짝 잘 놀란다.          |
| 8.가슴이 답답하다.                   | 21.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있다.      |
| 9.음부가 습하면서 가렵다.               | 22.눈이 뻑뻑하거나 충혈이 잘 된다.   |
| 10.(성인의 경우) 부부관계시 출혈이 있다.     | 23.기분이 가라앉거나 사는 게 재미없다. |
| 11.분노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           | 24.한숨을 쉰다.              |
| 12.불면증이 있다.                   | 25.추웠다 더웠다 한다.          |
| 13.잠자는 동안 땀이 난다.              | 26.가죽간의 갈등이 있다.         |

Table 2. Likert Scale for Delphi Method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약간 중요하다 | 중요하다 | 아주 중요하다 |

Table 3. First Delphi Study and Mean

| 설문문항                           | 평균값  | 설문문항                     | 평균값  |
|--------------------------------|------|--------------------------|------|
| 1. 심장이 두근거린다.                  | 5.60 | 14. 입맛은 있으나 소화가 안된다.     | 4.22 |
| 2. 건망증이 있다.                    | 5.36 | 15. 숨이 찬다.               | 3.66 |
| 3. 어지럽다.                       | 4.12 | 16. 불안할 때가 있다.           | 4.22 |
| 4. 평소 근심 걱정이 많다.               | 6.20 | 17. 늘 피곤하여 눕고만 싶다.       | 4.16 |
| 5. (여성의 경우) 생리량이 늘거나 줄은 적이 있다. | 4.58 | 18. 입이 쓰다.               | 4.36 |
| 6. (여성의 경우) 생리의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 4.48 | 19. 목이 마르다.              | 3.86 |
| 7. 가슴이 아프다.                    | 4.50 | 20. 깜짝깜짝 잘 놀란다.          | 5.32 |
| 8. 가슴이 답답하다.                   | 5.22 | 21.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있다.      | 4.88 |
| 9. 음부가 습하면서 가렵다.               | 3.26 | 22. 눈이 뻑뻑하거나 충혈이 잘 된다.   | 3.74 |
| 10. (성인의 경우) 부부관계시 출혈이 있다.     | 4.28 | 23. 기분이 가라앉거나 사는게 재미 없다. | 5.00 |
| 11. 분노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           | 5.64 | 24. 한숨을 쉰다.              | 4.91 |
| 12. 불면증이 있다.                   | 6.20 | 25. 추웠다 더웠다 한다.          | 4.64 |
| 13. 잠자는 동안 땀이 난다.              | 4.24 | 26. 가족간의 갈등이 있다.         | 5.95 |

하였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은 7점으로 답변하게 하였다. 구성문항들이 실제 歸來湯을 처방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됨을 확인시켰다.

#### A. 대상

대한병인학회 소속 52인의 임상한의사로 임상경력은 2~20년으로 평균 9.67년이었으며, 남녀는 구분하지 않았다.

#### B. 방법

설문작성은 직접대면작성, 이메일(E-mail), 팩스

(fax) 등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작성을 하면서 설문문항에 없는 기타의견도 함께 작성하도록 하였다.

#### C. 결과

1차 설문조사 결과 <평소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와 <불면증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항목에서 평균값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부가 습하면서 가려우십니까?>, <숨이 차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눈이 뻑뻑하거나 충혈이 잘 되십니까?> 이 4항목은 평균값이 4.00 미만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4. Second Delphi Study and Mean

| 설문문항                           | 평균값  | 설문문항                    | 평균값  |
|--------------------------------|------|-------------------------|------|
| 1. 심장이 두근거린다.                  | 5.46 | 12. 잠자는 동안 땀이 난다.       | 4.37 |
| 2. 건망증이 있다.                    | 5.21 | 13. 입맛은 있으나 소화가 안된다.    | 4.37 |
| 3. 어지럽다.                       | 4.15 | 14. 불안할 때가 있다.          | 5.39 |
| 4. 평소 근심 걱정이 많다.               | 5.75 | 15. 늘 피곤하여 눕고만 싶다.      | 3.85 |
| 5. (여성의 경우) 생리량이 늘거나 줄은 적이 있다. | 4.63 | 16. 입이 쓰다.              | 4.96 |
| 6. 여성의 경우 생리의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 4.48 | 17. 깜짝깜짝 잘 놀란다.         | 5.37 |
| 7. 가슴이 아프다.                    | 4.89 | 18.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있다.     | 5.33 |
| 8. 가슴이 답답하다.                   | 5.48 | 19. 기분이 가라앉거나 사는게 재미없다. | 5.37 |
| 9. (성인의 경우) 부부관계시 출혈이 있다.      | 4.85 | 20. 한숨을 쉰다.             | 5.26 |
| 10. 분노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           | 5.29 | 21. 추웠다 더웠다 한다.         | 5.04 |
| 11. 불면증이 있다.                   | 5.96 | 22. 가족간의 갈등이 있다.        | 5.68 |

### (3) 2차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에서 평균값 4.00 미만의 4개의 문항은 실제 임상에서 활용빈도가 매우 낮다는 임상한의사들의 조언을 통해서 2차 설문조사에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1차 설문조사에 작성토록 한 기타의견 중에서 ‘복피 무력’, ‘제변동계’, ‘흰색피부’ 등의 내용은 설문의 내용이 아니라 의사의 절진, 망진의 내용이므로 2차 설문문항에 추가하지 않았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지하고, 델파이조사의 반복, 연구의 목적과 방법, 향후 연구 성과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이번 연구의 목적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형식임을 주지하였다. 또한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됨을 재차 확인시켰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닌 실제 임상에서 변증하는 과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 A. 대상

1차 설문조사시 인원보다 두명 적은 50명의 대한병

인학회 소속 임상한의사로 임상경력은 2~20년으로 평균 8.71년 이었다.

#### B. 방법

설문작성은 직접대면작성, 이메일(E-mail), 팩스(fax) 등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 C. 결과

2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평소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와 <불면증이 있으십니까?>의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그리고 22문항 중 <늘 피곤하여 눕고만 싶다>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4.00 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들이 歸脾湯 辨證 판단에 있어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하여 22항목을 설문문항으로 채택하였다. (Table. 4)

### Ⅲ. 고찰

七情이란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의 七種의 상이한 情志를 말한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그 변화에 절도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는 無害하지만 만약 喜怒憂思가 지나치면 精神上 과도한 자극을 받아 그것이 정상의 生理變化에 영향을 주어 疾病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情志가 갑자기 과도하게 되거나 정신적인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때 정상적인 정신활동을 잃게 되어 인체의 氣機는 紊亂해지고 臟腑陰陽氣血이 失調되어 疾病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臟腑의 器質性 病變을 일으키게 된다.<sup>24)</sup> 이런 七情傷을 치료해주는 대표적인 처방이 歸脾湯이다.

韓醫學의 진단과정은 좀 더 客觀化되고 定量化 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계적인 장비로 진단의 客觀化, 定量化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따라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설문지를 통한 진단의 객관화는 한의 진단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와 함께 관련논문과 임상한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헌조사는 李<sup>3)</sup>의 醫學入門, 許<sup>2)</sup>의 東醫寶鑑, 張<sup>22)</sup>의 景岳全書, 朴<sup>23)</sup>의 病因病機學, 金<sup>14)</sup>의 病因論 등 5종을 선정 하였다. 문헌조사와 함께 관련논문을 참고하고 실제 임상에서 辨證시 나타나는 환자들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 26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26문항을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여 임상한의사 52인에게 중요도를 리커드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26문항 중 22개의 문항이 평균점 4.00 이상이었고, 4개의 문항은 4.00미만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셋째, 첫 번째 설문조사 결과 평균값 4.00 미만인 4항목은 임상상 意義가 떨어지므로 삭제하고 22항목으로 두 번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임상한의사 52인에게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임상에서 病因論的 관점에서 처방을 결정할 때 한의사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던 것을 설문을 통해 客觀化 시킬 수 있는 평가도구의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문항이 얼마나 임상에서 진단의 정확도를 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실제 귀비탕의 투약을 통해서 본 설문지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연구가 추후에 필요하겠다.

### Ⅳ. 결론

七情傷에 사용되는 歸脾湯을 처방하는데 있어 病因論的 개념이 잘 반영된 표준화된 지표가 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설문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종의 문헌고찰과 관련논문, 임상한의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26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6문항을 바탕으로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여 임상한의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病因論的 관점에서 歸脾湯을 辨證할 수 있는 22문항을 개발하였다.

위 결과는 향후 완성도 높은 설문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 좀 더 수준 높은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각 문항들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임상에서 변증하여 처방한 결과와 설문지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嚴用和. 中國醫學大系 제11권 嚴氏濟生方. 大星文化社, 1995, p 487.
2. 許浚,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86.
3. 이천, 의학입문, 서울,翰成社, 1983. pp 903-904.
4. 汪昂, 醫方集解, 서울, 대성문화사, 1984, pp 263-265.
5. 韩莉; 韩罡. 归脾汤治疗失眠119例. 基层医学论坛. 编辑部邮箱 2008年 08期.
6. 冯章巧; 吴红霞. 归脾汤治疗心悸失眠68例. 中国民间疗法, 编辑部邮箱 2006年 10期.
7. 蓝常青, 归脾汤治疗眩晕21例观察, 现代医院, 编辑部邮箱 2005年 06期.
8. 童建明. 加味归脾汤治疗轻度抑郁症. 国外医学. 中医中药分册, 编辑部邮箱 1998年 06期.
9. 龚俊华, 归脾汤加减治疗慢性疲劳综合征30例疗效观察, 浙江中西医结合杂志, 编辑部邮箱 2007年 10期.
10. 전국한의과대학원전학교실. 류편황제내경. 주민출판사. 2006.
11. 장중경. 금궤요략심전역해. 집문당. 2008.
12.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 2, 商務印書館, 1990.
13.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서울, 일중사, 1992.
14. 김구영, 병인론, 서울, 선. 2001.
15.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 방법론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87;8(1):146-160.
16.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3;5(1):61-80.
17. 김숙경, 박영배.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4;7(1):64-75.
18. 김숙경, 남동현, 박영배. 한열변증 설문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 (I).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2; 6(2): 141-156
19. 양동훈, 박영재, 박영배, 이상철. 어혈변증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10(1):141-152
20. 박재성, 김동훈, 김민용, 이상철, 박영재. 담음변증 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10(1): 64-77.
21. 배노수, 양동훈, 박영재, 박영배, 이상철, 오환섭. 열변증 설문지 개발,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6;10(1): 98-108.
22. 장개빈, 경약전서, 서울, 대성출판사. 1993.
23. 박찬국, 병인병기학, 서울, 전통의학연구소. 1992.

## APPENDIX

### 歸脾湯 辨證 설문지 I

환자성명 :

성 별 : 남 여

나 이 : 세

아래 질문들은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
| 전혀<br>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지<br>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번호 | 문 항                         | 1 | 2 | 3 | 4 | 5 | 6 | 7 |
|----|-----------------------------|---|---|---|---|---|---|---|
| 1  | 평소 근심 걱정이 많다.               |   |   |   |   |   |   |   |
| 2  | 분노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            |   |   |   |   |   |   |   |
| 3  | 가족간의 갈등이 있다.                |   |   |   |   |   |   |   |
| 4  | 불면증이 있다.                    |   |   |   |   |   |   |   |
| 5  | 추웠다 더웠다 한다.                 |   |   |   |   |   |   |   |
| 6  | 기분이 가라앉거나 사는 게 재미없다.        |   |   |   |   |   |   |   |
| 7  | 가슴이 답답하다.                   |   |   |   |   |   |   |   |
| 8  | 깜짝깜짝 잘 놀란다.                 |   |   |   |   |   |   |   |
| 9  | 불안할 때가 있다.                  |   |   |   |   |   |   |   |
| 10 | 심장이 두근거린다.                  |   |   |   |   |   |   |   |
| 11 | 건망증이 있다.                    |   |   |   |   |   |   |   |
| 12 |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있다.             |   |   |   |   |   |   |   |
| 13 | 한숨을 쉰다.                     |   |   |   |   |   |   |   |
| 14 | 가슴이 아프다.                    |   |   |   |   |   |   |   |
| 14 | (성인의 경우)부부관계시 출혈이 있다.       |   |   |   |   |   |   |   |
| 16 | (여성의 경우) 생리양이 늘거나 줄은 적이 있다. |   |   |   |   |   |   |   |
| 17 | 입이 쓰다.                      |   |   |   |   |   |   |   |
| 18 | 어지럽다.                       |   |   |   |   |   |   |   |
| 19 | (여성의 경우) 생리의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   |   |   |   |   |   |   |
| 20 | 늘 피곤하여 눕고만 싶다.              |   |   |   |   |   |   |   |
| 21 | 입맛은 있으나 소화가 안된다.            |   |   |   |   |   |   |   |
| 22 | 잠자는 동안 땀이 난다.               |   |   |   |   |   |   |   |